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삼국 · 통일신라시대 - 토기 이중등잔(燈盞) ③

이중등잔은 등잔에 따로 홈을 내거나 칸을 지어 사용한 등잔을 말한다. 초기 단순한 형태의 공간분할에서 점차 후대로 내려오면 보다 세련된 형태의 모습으로 탈바꿈한다. 이 등잔 또한 그리 흔한 형태는 아니지만, 뚜껑형 등잔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토기 이중등잔은 주로 공주나 부여 등 백제문화권에서만 확인이 되는데, 뚜껑형 등잔도 그러하듯이 아직까지 가야나 신라 등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토기 이중등잔과 별도로 고려나 조선시대의 도자기 이중등잔은 마치 주자(注子)처럼 생겨 '주자형등잔'이라고도 한다. 서로 사용하는 방법이나 기능면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전자가 한 공간을 분할하여 사용하였다면 후자는 처음 만들 때부터 안팎의 공간을 따로 구성하여 두 겹으로 처리하였다. 등잔 윗부분에는 어구(魚口)나 주자의 주둥이처럼 살짝 주구(注口)를 내었는데, 이 부분의 쓰임이 이채롭다. 당장은 등잔 가장자리 심지에서 떨어지는 기름찌꺼기(기름똥)를 받치는 기능을 하지만, 이곳을 통해 물을 부으면 등잔의 내·외벽 사이로 물이 고여 등잔이 달궈지는 것을 식히는 구실을 한다. 조금이라도 기름을 아끼고자 하는 옛 사람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대개 종지형 등잔의 경우 등잔에 기름을 붓고 심지를 박아 불을 켜면 심지의 불 때문에 등잔 전체가 뜨겁게 달궈진다. 그러면 자연히 그릇 속 등잔의 연료가 빨리 소모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등잔의 연료(기름)를 아껴보고자 고안한 것이 바로 이러한 주자형등잔이다.

사진1 토기 이중등잔// 삼국시대(백제)// 지름 14cm, 높이 8.3cm// 충남 부여 추정 왕궁지 출토//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국립민속박물관, <<불의 민속>>, 1996, 76쪽 인용.
 사진2 토기 이중등잔// 통일신라(백제)// 높이 4.8cm, 입지름 14.2cm//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미륵사지 출토//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소장
 사진3 토기 이중등잔// 통일신라(백제)// 높이 4.8cm, 입지름 14.2cm//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미륵사지 출토//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소장
 사진4 청자주자형등잔(靑磁注子形燈盞)// 고려시대// 밑지름 5.2cm, 윗지름 10cm, 높이 6.1cm// 한국등잔박물관 소장



사진 5



사진 6



사진 7



사진 8

자료를 살펴보면, **사진 1**은 삼국시대 부여 추정 왕궁지에서 출토된 토기 등잔이다. 등잔 한쪽에는 그릇의 손잡이인지 기둥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자루 모양의 막대가 남아있고, 왼쪽 편에는 심지에서 떨어지는 기름찌꺼기를 받칠 수 있도록 한 공간이 별도로 있다. 연질(軟質)의 토기로서 그릇 안쪽과 바깥쪽 표면에 검게 그을린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등잔은 실제 사용하였던 것 같다. 아쉽다면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등잔 오른쪽 자루 모양의 막대가 어떠한 용도로 쓰였는지 궁금증을 자야낸다. 그리고 **사진 2**와 **사진 3**은 동일한 유물을 각기 다른 방향에서 촬영한 것으로 통일신라시대 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토기 등잔이다. 전체적으로 회백색을 띠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었지만 비교적 완형에 가까운 모습을 띠고 있다. 토기는 경질(硬質)에 가까우나 소성(燒成)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잘 정선된 태토(胎土)에는 약간의 모래알이 섞여 있으며, 등잔의 형태가 타원형이고 바닥이 둥글다. 그릇의 벽이 거의 수직으로 낮게 올라와 끝에서 약간 안으로 오므려져 있다. 지름이 가장 넓은 곳의 한쪽에는 최대 1.5cm가량 거리를 두고 칸이 나누어져 있으며, 칸의 가운데 아래쪽에는 지름 0.8cm정도의 둥근 구멍이 나있다. 구멍은 그릇을 굽기 전에 뚫은 것으로 보아, 이곳에 등잔의 심지를 끼워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릇 윗부분에 검게 그을린 흔적이 더욱 더 이러한 상황을 잘 대변해 준다.

사진 4는 한국등잔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시대 청자주자형등잔(靑磁注子形燈盞)이다. 황색이 감도는 황청자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그릇의 가장자리 쪽에 어구(漁口)와 같은 주구가 달려있다. 주구는 등잔의 심지에서 떨어지는 기름찌꺼기를 받도록 고안된 것이며, 나중에는 여기에 물을 부어 등잔의 열기를 식혀 기름 소모를 줄이는 기능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형태를 더욱 잘 살린 것이 **사진 5~8**까지의 조선시대 백자주자형등잔(白磁注子形燈盞)들이다. KEA

사진 및 자료 / 국립민속박물관, 《불의 민속》, 1996.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미륵사유적발굴조사보고서》II, 1996.

국립민속박물관,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연세대학교박물관, 한국등잔박물관

글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진5 백자주자형등잔(白磁注子形燈盞)// 조선시대// 밑지름 3.7cm, 윗지름 8.3cm, 높이 4.8cm//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사진6 백자주자형등잔(白磁注子形燈盞)// 조선시대// 밑지름 4.5cm, 윗지름 7.1cm, 높이 4.2cm//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사진7 백자주자형등잔(白磁注子形燈盞)// 조선시대// 밑지름 3.8cm, 윗지름 8.2cm, 높이 5.0cm//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사진8 백자주자형등잔(白磁注子形燈盞)// 조선시대// 밑지름 5.7cm, 윗지름 8.1cm, 높이 4.9cm// 연세대학교박물관 소장